

영화 '1987'이 다시 부르는 이름들

관객 500만명 넘기며 돌풍
민주·인권운동가 재조명
문익환·이돈명·신영복 기일
시민 관심 높고 묘역 '복적'



문익환 목사 이돈명 변호사 신영복 교수

영화 '1987'이 관객수 500만명을 돌파하면서 1970~80년대 민주·인권 운동가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종철 열사의 31주기 추모식이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렸다. 올해 추모식은 최근 개봉한 영화 '1987'을 계기로 고문치사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씨,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박 열사의 모교인 서울대와 부산 해광고 재학생 등도 추모식을 지켜봤다.

11일 7주기를 맞은 나주 출신 이돈명(1922~2011) 변호사의 묘역(경기 남양주 천주교 성당묘지)에도 민주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영화 '1987'에서 배우 설경구가 연기하며 최근 주목을 받은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참석했다. 김 전 수석은 이 변호사와 1970~80년대 인권운동을 함께 돌도 없는 사이다. 문국주



고 박종철 열사 31주기 추모제

14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인권센터(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고 박종철 열사 31주기 추모제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연철뉴스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박종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명예의장 등도 참석, 고인을 기렸다.

이 변호사는 조선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3회)에 합격해 판사로 근무하다 1963년부터 인권변호사 길을 걸었다.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쿠데타를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

그가 변호한 사건은 민청학련 사건, 전태일 사건, 명동 3·1민주구국선언 사건, 관인숙 성고문 사건, YH사건 등 민주화의 획을 그은 사건들이다. 또한 김지하 시인, 한승헌 변호사, 이영희 반공법위반 사건을 비롯해 김재규 등에 의한 박정희 살해사건,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등 시국사

건에는 항상 그가 있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이부영 당시 민통연 사무차장을 숨겨준 혐의로 6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인권 수호에 앞장선 그는 황인철·조준희·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다.

이 변호사는 1988년 선거를 통해 조선대학교 총장(8대)에 취임하며 대학 발전의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15일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저자 고(故) 신영복(1941~2016)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2주기다.

경남 밀양 출신 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1966년부터는 육군사관학교 경제학과 교관으로 재직하며 경제학을 가르쳤다. 그러나 박정

희 정권이 조작한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옥살이 동안 술한 고문과 회유가 있었지만 그는 결코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다.

또, 오는 18일은 올해 탄신 100주년을 맞는 고(故) 문익환(1918~1994) 목사의 서거 24주기다. 영화 '1987' 엔딩 크레딧에서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장면 때 희생당한 열사 26명의 이름을 절규하며 부른 사람이 문 목사다. 문 목사는 1983년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홍남순·함석헌 등과 5인 긴급선언을 발표했고 1989년 방북해 김일성과 통일을 협의했다. 귀국 후 노태우 정권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1993년 사면된 뒤 이듬해 별세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대 교수 공채 또 불공정 논란

최종면접 하루전 재심 절차... 단독 후보, 소송 제기

전남대학교가 교수 공채 과정에서 또다시 불공정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해 정치외교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공채 과정에서 회의록 조작, 타 전공 교수 합격 등으로 시비가 제기된 데 이어 세번째다. 대학의 채용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면서 공신력을 잃고 있다.

12일 전남대에 따르면 예술대학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교수 공모 공고에 내고 1차 서류심사와 전공심사, 2차 연주심사와 공개강의,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인 A씨는 1차와 2차 심사를 통과, 단독으로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학 측은 그러나 면접 하루 전인 지난 3

일 자세한 설명 없이 A씨에게 면접 심사 연기를 통보했다. 심사에서 탈락한 다른 응모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게 계기였다.

대학 측은 일부 공채공정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된 내용을 검토한 뒤 불공정하다고 판단,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학 측이 이의신청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재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법원에 전임교원 공개채용 가야금병창 분야 면접 중단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남대 측은 "이의신청과 재심 결정은 '전남대학교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적법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윤영기자 penfoot@

강력범죄 '검거왕' 광주경찰

5대범죄 검거율 전국 1위...발생률 9.5% 줄어

광주경찰청이 5대 범죄 검거율 전국 1위에 올랐다.

특히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검거율은 100%를 달성하는 등 전국 최고의 치안실적을 냈다. 이 같은 치안 실적 강화 등으로 5대 범죄 감소율도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14일 "2017년도 5대 범죄(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검거율은 84.7%로 전국 1위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6%, 전국 평균보다 5.9%나 높은 것이다.

특히 살인(9건)과 강도(33건)사건은 모두 해결했으며, 폭력 90.3% 등에서도 높은 검거율을 냈다. 전국적으로는 총 50만 2539건이 발생해 39만 5914건을 검거하는 등 78.8%의 검거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전년(1만 5416건)보다 9.5% 감소한 1만 3951건을 기록했다.

5대 범죄는 경찰에서 국민의 범죄 불안이나 일상생활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치안지표로 관리하는 범죄로, 살인과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등이다.

광주경찰청은 그동안 매달 5대 범죄 분석회의 개최 등 5대 범죄 해결에 주력해 왔다. 각 경찰서별로 생활범죄수사팀을 편성·운영해 지터거 등 다소 경미한 사건 신고일지라도 범인검거와 피해품 회수에 주력하는 등 저인망식 치안활동과 동네 주취폭력 사범에 대한 엄정대처 등이 범죄율을 낮추고 검거율은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박진표기자 lucky@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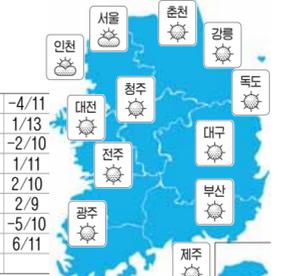
해돋이 07:41 일몰 05:57
해짐 17:43 달짐 16:18

낮엔 포근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이 끼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1/12	보성	맑음	-4/11
목포	맑음	3/11	순천	맑음	1/13
여수	맑음	4/12	영광	맑음	-2/10
나주	맑음	-4/11	진도	맑음	1/11
완도	맑음	3/13	전주	맑음	2/10
구례	맑음	-4/11	군산	맑음	2/9
강진	맑음	-1/13	남원	맑음	-5/10
해남	맑음	-1/12	축산도	맑음	6/11
장성	맑음	-3/11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1.0	동~남동	0.5~1.0
남부	면바다	남서~서	0.5~1.5	동~남동	0.5~1.5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면바다(동)	서~북서	0.5~1.5	서~북서	0.5~1.5
서부	면바다(서)	남서~서	0.5~1.0	북동~동	0.5~1.5

생활지수	높음	보통
뇌졸중	높음	
감기		보통
미세먼지		보통

목포	간조	만조
	06:17	00:43
여수	19:04	13:39
	01:51	08:37
	14:39	20:23

주간 날씨

16(화)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	☁	☀	☀	☀	☀	☀
1/10	4/8	-1/8	-3/7	-3/7	-3/8	0/6

당분간 평년보다 포근...내일 겨울비

여수·신안·해남 저수온 주의

최근 이어진 한파로 여수, 신안, 해남 등 전남 일부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가 내려졌다. 다행히 이번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당분간 한파나 눈 소식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15일 광주·전남 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10도 이상을 기록하는 등 낮 최고기온이 10~13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16일 오전부터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영광 등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져 오

로 유지해야 하고, 면적의 1% 이상을 월 동장으로 나뉜 보온덮개를 설치하고 깊은 웅덩이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육상 양식장에서는 정전에 대비해 비상 발전기를 점검하고 보온덮개를 설치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15일 광주·전남 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10도 이상을 기록하는 등 낮 최고기온이 10~13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16일 오전부터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영광 등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져 오

후부터는 광주·전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강수량은 1~2mm 안팎이다. /최권일기자 cki@

후부터는 광주·전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강수량은 1~2mm 안팎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부터 고양이도 동물등록 의무화

나주·구례 등 전국 17곳 시범사업

나주시·구례군 등에서 개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동물등록제를 고양이로 확대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모두 17개 지자체(서울

충주,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 제주·서귀포)가 참여한다.

등록 희망자는 관할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김형호기자 khh@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정통 차이나이스 레스토랑 **홍메이**가 오픈하였습니다.

"최고의 음식" "최상의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은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정통중화요리 | 가족모임 · 비즈니스모임 · 단체석완비

紅梅 홍메이

- 각종 행사를 위한 품격있는 장소 -

화순 엘리체 골프장 주방장이 직접 요리하는 품격있는 중국집!

예약문의. 062)571-5531 광주시 북구 설죽로 419(삼각동 507-5) 일곡 엘리체 프라임 APT 상가 115동 2F